

도미니크 바튼 (Dominique Barton)

맥킨지 (Mckinsey & Company) 아시아 태평양 회장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현재 상황, 즉 빠르게 변하고 있는 세계에서

한국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드린 후,

한국이 앞으로 5년에서 10년 동안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국은 10년 전보다 훨씬 나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표면과는 달리 그 안을 들여다보면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1997년 이래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4% 정도의 경제 성장을 이룩했으나,

10년 전과 비교해보면 사실상 후퇴하는 성장 속도입니다.

중국과 인도, 베트남, 싱가포르 등은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앞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한국의 상황과 관련해서 크게 다섯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한국으로의 투자가 크게 격감하고 있습니다.

둘째, 한국의 서비스 산업이 아주 부진합니다.

일자리의 70% 가 서비스 산업 부문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았을 때,

반드시 이 부분에서 개선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 부문에 있어서의 도전도 생각해야 합니다.

네 번째, 인구 고령화에 대한 문제는 모두 알고 계실 것이며,

앞으로 우리에게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노사문제가 아직까지 귀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반면, 전 세계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는 우리가 강한 분야에서 빠르게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2년 간 중국 베이징에서 3만 9천 개가 넘는 IT 기업이 탄생했습니다.
‘Petro China’ 사의 경우 얼마 전 세계 최초로,
시가 총액이 1조 달러가 넘는 기업으로 발표되었습니다.
5년 전만 하더라도 354억 달러 정도의 규모였던 기업이 이렇게 성장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게임의 법칙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더욱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금융 시장 뿐 아니라 기후 변화나 에너지, 안보 문제 등의 문제가 존재하며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루어야 하는 문제들입니다.

변화의 속도 역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은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두 배 이상의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평균 수명을 살펴보다도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의 경제가 그만큼 빨리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는
시장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도와 중국을 합쳐 8억 명의 인구가 8년 이내에
중산층으로 진입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큰 시장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한국의 더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해야 합니다.
세계의 일류 기업 수준에 달하는 기업의 수가
현재의 세 배 수준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국,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 등 우리의 이웃 국가들은 모두
국가 지도자 차원에서 이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총리가 나서서 ‘515 프로그램’을 선창했습니다.
2015년까지 세계 5위 기업을 다섯 개 이상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해외 시장에 직접 진출해야 합니다.
한국이 직접 나서서 해외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지적인 논쟁들을 주도해 나가야 합니다.

기후 변화라든가 에너지 문제들을

미국이나 유럽의 국가들에게만 맡겨둘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첫 번째로, 지난 10년 이상 한국 사회에 누적되어 있는

교육과 같은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교육 부문의 경우,

우리는 OECD 가입국 평균보다 4배 이상의 사교육비를 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100위 대학 안에 한국의 대학은 단 2개뿐이며,

일본은 11개, 중국은 6개의 대학들이 200위 안에 들어 있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를 반드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해외 투자에 있어서도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2003년에는 우리가 중국이나 인도보다 많은 투자를 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이를 반드시 따라잡아야 할 것입니다.

연금이나 의료 체계 개혁 또한 이루어야 합니다.

생산성 부문의 개혁을 이루어야 합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연금, 의료 체계의 개혁과 더불어

생산성 향상을 통해

OECD 회원국의 생산성에 버금가는 수준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바로 지금이 한국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앞으로 5년 동안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세계에서 지도자 반열에 들 수 있는 국가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